



논개 (원작)

죽지않는 사랑새 되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창작판소리

논개 (원작)

죽지않는 사랑새 되어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제 출 문

(사) 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귀하

본 작품집(원작)을 창작판소리<논개>의
제 1차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사)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contents

1. 수주변영로 시민의 「논개」를 음미하며 문을 연다.
2. 역사의 진실은 숨길 수는 없는 일
3. 주씨일가의 삶의 내력과 논개의 오라비 대룡의 죽음
4. 주씨부부의 자식점지 축원
5. 논개의 탄생
6. 둥둥타령
7. 논개의 사주와 작명
8. 논개타령
9. 아버지 주달문의 죽음
10. 박씨의 탄식
11. 시동생 주달무의 출현
12. 논개를 민며느리로 팔다.
13. 박씨부인의 신세자탄
14. 논개모녀의 야반도주
15. 논개모녀의 추포·압송
16. 운명의 재판
17. 논개와 최경희의 첫만남과 재판의 종결
18. 갈 곳 없는 논개 모녀의 신세
19. 조선은 양반의 나라
20. 논개 모친의 죽음
21. 사도시정 최경희를 수행하다(당파싸움).
22. 논개 나이 열일곱
23. 최경희의 부실되다(사랑가).
24. 최경희의 모친상 (님 그리움)
25. 임진왜란
26. 최경희 의병 출정
27. 골자 부대 (최경희와 논개의 재회)
28. 금산 무주 전투
29. 경상도 지원 (영남으로 가자)

30. 1차 진주성 전투
31. (님 그리워)
32. 논개 장수 떠나 최경희에게 (재회)
33. 수성파와 공성파의 대립
34. 진주성 입성 풍경 (예정된 혈전)
35. 병력 점고
36. 논개의 선동
37. 일본군 진주성으로
38. 진주성 전투 (첫째날)
39. 진주성 전투 (둘째날)
40. 진주성 전투 (셋째날)
41. 진주성 전투 (넷째날)
42. 진주성 전투 (다섯째날)
43. 진주성의 마지막 밤
44. 진주성 전투 (아홉째 날)
45. 일본군의 살육 (광란의 잔치)
46. 살아남은 논개 (마지막 밤)
47. 전승 축하연
48. 칠월칠석날
49. 논개 의거
50. 더질 더질 (마무리)

판소리 『논개 - 죽지않는 파랑새 되어』

1. 수주변영로 시인의 「논개」를 음미하며 문을 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 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뭇던 그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 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라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 꽃 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한 여인의 죽음을 고귀하고 애절하게 읊은 시입니다.
예전에 시란 것은 곧 노래였다고 합니다.
수주 변영로 시인의 논개 라는 노래 어떻습니까?

2. 역사의 진실은 숨길 수는 없는 일

어화 여러 벗님네들
논개 라고 아시지요
사백년 전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왜놈 장수 끌어안고 남강 물로 뛰어든 이
아직까지 어떤 사람 진주기생 논개 라 하고
어디선가 들은 사람 장수기생 논개 라네
헌데 기생아녀 뭣이여 기생아녀

아면 그렇고 말고 그럼 뭘이여?
시방부터 이내 말씀 잘 새겨들어 보소
글로써(붓으로) 남긴 얘기 입으로 전한 얘기
사백 년 전 있었던 일 어찌 분명 하랴마는
역사의 진실이란 숨길 수는 없는 일
막을 수는 없는 일 속일 수는 없는 일
붉은 꽃이 떨어진지 오랜 세월 흘렀건만
죽지 않는 파랑새 되어 가슴속에 날아드네
오늘 얘기 보따리를 술렁술렁 풀어보자.

3. 주씨 일가의 삶의 내력과 논개의 오라비 대룡의 죽음

해동이라 조선국 호남정맥 중심부에
덕스럽고 넉넉한 덕유산이 자리하였는데
북 덕유 상봉과 남 덕유 중봉을 연결한 육십령은
옛날부터 백제와 신라를 갈랐고 영호남의 경계이자 통로였다
덕유산 한 자락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자갈한 능선과
봉우릴 만들었는데 그 능선 한 곳에 민재라는 고개가 걸쳤었다.
이 민재 동쪽은 경상도 함양 서상면 금촌 방지마을이고
서쪽은 전라도 장수 계내면 대곡리 췌촌 마을이라
두 마을 거리는 산길로 30리
때는 16세기 조선시대
광란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임금 시절
향약이란 것이 보급되어 향촌을 동네마다 짜임새 있게 하려 사림파들
이 득세하면서 지방의 작은 마을까지 서당이 확산되기 시작했었다
함양이나 장수가 깊은 산골이긴 한가지로되 함양 땅은 예부터 골골이
서당이 혼했던데 비해 장수 땅, 그 중 췌촌은 서당이 없어 이웃 방지
마을을 무척 부러워 했던가보더라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췌촌 사람들도 성당 차릴 궁리를 하는데
문제는 훈장이었다.
해서 함양 방지마을 사람들에게 사정한 끝에 신안 주씨 논개의 할아버

지가 훈장이 되어 주씨 일가 (-아버지 주달문, 어머니 밀양박씨, 그리고 삼촌 주달무) 식솔을 거느리고 쫓겨온 마을에 서당을 차려 살게 되었구나
 그렇저렇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
 아버지 주달문이 쫓겨온 마을 하나밖에 없는 서당 훈장을 맡고
 어머니 밀양 박씨와 살아갈 제 대룡이란 아들까지 두어 곤궁하긴 해도
 세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는데
 대룡은 어려부터 씩수있고 총명하고
 행동거지 민첩하여 부부사랑 담뱃 받고
 학동득과 어울려서 글 배워도 으뜸이라
 열서너 살 되어서는 남자모습 갖춰가고
 믿음직한 장정구실 걱정근심 바이 없네
 십오 세가 되었는데 어허 이게 웬일이냐
 알수 없는 병이 들어 무단히 요절 하네
 가인 박명 이라더니 잘난 것도 병이더냐
 남들보다 잘난 것이 귀신시기 받았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폭 꺼지는구나
 억울하고 원통하다 자식 잃은 이내슬픔
 단장이란 이런 건가 자식 잃은 부모간장
 토막토막 끊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네

4. 주씨 부부의 자식점지 축원

주달문과 박씨내외는 자식 잃은 슬픔안고 하루하루 허깨비처럼 세월을
 보낼 적에 어느 화창한 봄날

돌연 박씨 신세한탄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이렇게는 못 살것소. 애가 끊고 마음이 부대껴 못살것소”

“여보 마누라! 갑자기 어디가 불편하오?”

주달문이 깜짝 놀래 박씨 몸을 살필 적에 박씨 두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식하나 점지해달라고 치성을 드려봅시다.
 삼신할매 치마꼬리라도 잡고 간청해 봅시다. 영감”

주달문이 박씨 볼에 흐르는 눈물 훔치며 가만 바라보더니

박씨 두 손을 꼭 잡고 “그럼시다. 마누라 내 뜻도 당신과 다르지 않소. 명산, 대찰, 바위, 고목 어디라도 찾아가 봅시다.”

명산대찰 찾아 간다 울 울 창창 빼어난 숲
기기 묘묘 기암괴석 맑고 푸른 옥류 천
덕스럽고 너그러운 덕유산 영덕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비나이다 삼신님전 비나이다
석불보살 부처님전 해님달님 하늘님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점지 비나이다
근골성한 자식하나 점지하여 주옵소서
지극정성 발원하여 석삼년을 보낼 적에
천지신명 감응하사 삼신 할매 내보내며
박씨부인 뱃속궁전 자식점지 하는구나

5. 논개의 탄생

그때부터 박씨부인 착한 마음으로 열 달을 채우는데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고 금기의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고
곳은일은 피하고 살생하지 않으며
시샘, 원망, 탐욕, 증오 나쁜 마음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열 달이 된 후
하루는 해산 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주달문 거동보소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겁을 내어
밖으로 우루루 나가면서 “아이고 뒷집 산파할멈
우리 마누라 해산기미 있소. 얼른 좀 와 보시오.”
산파할멈이 들어온다 산파할멈이 들어오며
“아이고 훈장님 어서 물이나 좀 끓여주시오.”
“예 그러지요” 짚자릴 들여 밀고

불을 지펴 물 대우며 불안한 마음 급한 마음
 순산하길 기다릴 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몸 풀었던 소식은 없고
 박씨절규 하루 종일 초가삼간 울리는 구나
 산파 할멈 나와서 체머리를 흔들며
 “산모 하문 열리려면 한참 더 걸리겄소
 마흔 중반 노산이라 난산할 각오 도리 없소”
 “이걸 어찌 큰일났네” 안절부절 우와 좌왕
 안마당을 서성일 제 해는 지고 날 저물어
 술시가 다 되어도 “아이고 아이고”
 절규소리만 드높고 반가운 소식 없네
 이렇게 애간장을 다 썩이며 기다릴 제 찰나(아빨사) 터졌구나
 이 울음이 웬 울음 아기울음 터졌구나
 산파할멈 문을 열고 “선녀요 계집이요 산모도 무사하지오”

6. 똥똥 타령

훈장어른 이말 듣고 우르르 달려들어 박씨부인 두 손 잡고
 “수고하셨소” 말 전하고 조심조심 여식안고 똥똥 타령을 부르는데
 똥 똥 똥 내 딸이야 어허 똥똥 내 딸이야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나
 금자동아 은자동아 세상천지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은을 준들 너를 사라
 어허 똥똥 내 딸이야 우루루 깎꿍

7. 논개의 사주와 작명

애를 한바탕 얼르고 나서 “가만있자, 지금은 몇날 몇시인가-”
 주달문은 평소에 역을 공부하는 일을 즐겨 방금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짚어보는데 “올해가 갑술년, 이번 달이 구월이니 갑술월, 오늘이 초사
 혼날 갑술일. 아 그리고 지금이 갑술시, 사주 전체가 갑술이네 그러.

사 갑술이구나! 대단히 귀하고도 기이하다.

계집아이 사주가 하필이면 사 갑술이라니..... “

그때여 박씨는 오랜 진통 시달린 터에

고단한 얼굴로 겨우겨우 기력 찾아

모기만한 소리로 말을 한다.

“사내 자식이 아니고, 여식이라 섭섭하시겠소.”

“허허, 마누라 입방정, 행여 그런 소리 입에 담지마오.

늦복 내려주신 신령님이 노하시오.”

“고맙소 영감. 그리 생각하여주니 고맙소.

헌데 영감 아이 이름을 뭐라 지어 부르리까?”

주달문이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겨

염불 외 듯 중얼중얼 손가락을 짚어가며

“개띠 해에 개의 달, 개의 날에 개의 시

사 갑술이라- 개를 낳았네, 개를 낳씨.

여보 마누라. 아 아이 사주에 개가 넷이 들었으니

당신이 개를 낳은 셈이오.

낳는다는 말이 우리고향 경상도 말로 놓는다 아니오?

낳은 개가 놓은 개 이두문식으로

말할 논자에 끼일 개자 논개 어떻소?

옛말에 이르기를 귀한 자식 이름은

천하게 지어 붙여야 수명장수 한다잖소.

논개 어떻소 주 논개라 지읍시다.”

박씨 순간 그 말 듣고 죽은 자식 대롱 생각하며

거창하게 이름 지어 수명재촉 하였구나

“중소 영감 방금 뭐라 했소.”

“논개요 주 논개요”

“논개 주 논개 논개 논개 주 논개요.”

부르기도 좋아라 듣기도 편해라

중소 괜찮소 내 맘에 꼭 드네요.

논개 주 논개 우리 딸이 주 논개요.

동네사람들 우리 딸 이름은 주 논개요.

8. 논개 타령

이렇게 딸아이 이름을 지은 후에 주달문은 논개를 품에 안아들고
“여보 마누라 우리 딸 논개의 사주가 특별한 사주요.
장차 멀리 큰일을 이룩하고 반드시 이름을 드높일 것이 분명하오.
우리 딸 논개, 원갓 정성들여 잘 키워 봅시다.”

“그럽시다. 예 그러지요. 영감”

다시 한번 똥똥 타령을 부르며 노는디
똥개 똥개 똥개야 두똥개 똥개 똥개야
갑술년에 갑술 월 갑술 일에 갑술 시
개띠 해에 개의 달, 개의 달에 개의 시
너희 어멈 널 날 적에 개를 놓아 논개야
논개 논개 논개야 주 논개 논개 논개야
논개야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거라.

9. 아버지 주달문의 죽음

호사다마라 했던가 세옹지마라 했던가
행복은 꼭 불행과 같이 다니는데 느릿느릿한 황소걸음으로
가는 행복이 딸랑딸랑 방울 나귀 땀으로 쫓아오는 불행을
어찌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 고삐이 들면 여지없이 기침부터 하고
평소에도 받은 기침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던
논개 아버지는 결국 해수병으로 자리에 눕고 마는구나 .

박씨부인 원갓 정성으로 병수발을 하는데

“여보 영감. 이약 잡수시면 즉효한답니다. 어서 약 자시오.
어서 드시고 기운 좀 차리시오.”

인명은 재천이라 하늘에 뜻 거역 못하고
어린 딸과 박씨부인 남겨두고 먼먼 황천길로 떠나는 구나.

복! 복! 복!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어허님차 너화님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허어 너 어허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화님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저 건너 안산이 북망이로구나
 어허넘차 너화님
 못가것네 안갈라네 차마 설워서 못가것네
 어허 넘차 너화님
 인제가면 언제나 올라요 오시는 날은 일러주오
 어허너마 너화님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아이고 여보 영감 날 버리고 어디가오 못가지요 못가지요
 험한 세상 우리모녀가 어찌 살라 이리시오
 어린 딸과 날 버리고 무정하게 어딜가오
 나고 가세 나도 가세 산 높고 길 멀은데
 다리 아퍼 어이 가며 날 저물고 어두운데
 설 곳 없어 어이가리
 어허 넘차 너화님
 여보소 상두꾼들 말을 듣소
 너도 죽어 이 길이오 나도 죽어서 이 길이라
 인간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일반이로구나
 어허 너 어어허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화님

10. 박씨부인의 탄식

이렇게 주달문은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가세 형편을
 병치레로 잔뜩 기울여놓고 궁상한 살림살이에
 가난한 한 짐 더 안겨주고 떠나버렸구나
 이때여 세상인심이 유별나고 함난한지라
 박씨부인 세상살이 겪어야 할 가난과 슬픔
 외로움은 두 번째라. 여필종부!
 따라 죽지 못해 열녀문을 세우지 못한 과부들은
 이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 과부개가는 절대 금지
 남편 없는 과부신세 얹잡아보는 세상인심이야
 늙으나 젊으나 비켜갈 방도 없는 건 마찬가지로

11. 시동생 주달무의 출현

박씨부인은 이 고생 저 고생 원갓 설움에
어린 논개를 안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하루는 한 동네 사는 시동생 주달무가 찾아왔구나
주달무는 난봉꾼 집안의 애물단지
일찍이 상처하고 무자식에 홀아비 신세
안하무인 주정뱅이 싸움꾼에 노름쟁이
형님죽고 발길 끊던 시동생이 웬일이냐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입에 발린(진실없는) 거짓부렁으로
과부형수 고단함을 위로하듯 말을 한다.
예부터 이르기를 동기일신이라 안했소
형제는 한 몸이라 내 말 믿고 따르시오
나이 어린 조카딸과 고생하는 형수신세를
내 어찌 모르겠소 뜬금없이 건네는 말이
살림살이 합칩시다.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
모녀 어찌 산단말이오. 저승에간 형님도
마음 편치 못 하실 터 어느 누가 돌보리까
형수님 시동생 말을 대충 설렁 듣지 말고
내말 믿고 따라주시오 이사하시오 합칩시다

12. 논개를 민며느리로 팔다

시동생이 이 무슨 꿈꿈이 속인지 모르것네
제 일신도 못다 추스르는 주제에
뭐 죽은 형의 식솔을 돌보겠다고.
박씨 부인이 시동생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살이 험난해도 그 말 믿고 쉬 따를 리가 있겠느냐
허나 시동생 주달무는 하루 멀다않고 찾아와서
“무슨 저울질이 그리 오래 걸리오
내가 미답지 않아 그러시오.

내 나이 불혹 넘긴 중늙은이인데
 예전 개망나니 주달무만 생각하면 섭섭하오.
 꾸부렁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늦게 철든 시동생 말 믿고 따르시오.”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 하였더니
 결국 박씨부인 시동생 말이 미덥지는 못했으나
 어린 딸 자식과 단둘뿐인 과부신세가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라.
 초가삼간 정리하여 주달무 집으로 이사를 했것다.
 험한 세상 무섭다고 별별 떨며 제 발로 범의 굴속으로
 들어간 격이 되었는데
 하루는 시동생이 술이 얼근하여 고기 한 근에 생선자반까지
 사들고 들어와 역겨운 술 냄새를 껌껌 풍기면서
 과부형수에게 하는 말이
 “세상 너무 딱딱하게 살면 몸뚱아리가 고단한 법이오.
 체통이 밥통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좋게 좋게 살아봅시다.”
 이상야릇한 말로 횡설수설 지껄이고 나가는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가 머지않은 풍천마을에서 웬 노파가 찾아 와서
 작은 보따릴 내밀면서
 “김풍헌 님 사주단지요” 하니
 박씨는 어리둥절하며, “예? 사주단지라니요?”
 “모르셨소. 여차저차 저차여차요.” 하고 사정을 설명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아먼 그렇고 말고
 시동생이 사고를 쳤네 일을 내고 말었구나
 네 살 백이 조카딸년 민며느리로 팔었다네
 신랑은 삼십 넘은 김풍헌의 큰아들
 병어리에 백치라네 수족 못쓰고 배냇병신
 박씨 이말 듣더니마는 숨모자란 물고기처럼
 말은 않고 입만 뻥긋 뻥긋 뻥긋 거리다가
 가슴치며 오열을 한다. “여보시오 동네사람들
 세상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네 살 백이 조카딸을 배냇병신에 팔었다네
 시동생이 에미 몰래 조카딸을 팔었다네
 이런 혼사 어디 있소 사기요 협잡이요

울며불며 가슴치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

13. 박씨부인의 신세자탄

시동생 주달무는 조카딸 판돈으로 외상 술값에 놀음 빚
여기저기 쫓 돈까지 갚고 남은 돈마저 한 푼 남기 없이 잘 챙겨
어디론지 떠나버린 후 종무소식이고
그때여 김풍헌이 집에서 이런 사실을 아는지
사주단자 보낸 후로 논개와 박씨가 혹시 어디로 도망질 할지 몰라
그 집 머슴들을 교대로 보내 감시를 하는 구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어린 딸을 빼앗기게 생긴 박씨는
사주단자 받은 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끔찍한 악몽 꾸고 가위에 짓눌리는데
죽은 남편이 나타나 부둥켜안고 울다가
호통치며 뺨따귀를 올려붙이고 가기도하고
제 몸보다 훨씬 큰 혼례활옷을 덮어쓴
어린 딸이 어미를 원망하며 통곡도 하고
뜬눈으로 밤샘 제는 원갓궁리도 하는구나
양젓물을 마셔볼까 밧줄로 목을 맬까
우물속으로 뛰어들까 죽을 결심도 여러차례라
어린 딸만 남겨두고 죽을 수도 없는 일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하루 보내면서
눈물에 젖어 눈을 감고 눈물로 눈을 뜬다

14. 논개 모녀의 야반도주

난데없는 생이별을 하게 된 박씨가 껴이껴이 울며 세월을 보낼 적에
하루는 어린 논개가 돌아가는 정황으로 낚새를 알았는지
어미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대고 앉아 느닷없이 하는 말이
“어머니 우리 도망가요.”
박씨 들은 귀를 의심하며

“뭐? 너 시방 뭐라 했냐?”

어린 논개 총명한 두 눈을 반짝이며 또박또박 얘기하길

“어머니 도망가요. 숙부가 나를 팔아 시집보낸다면서요.

난 싫어요. 어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난 시집안가고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꺼예요. 어서 도망가요.”

어린 딸 논개의 말을 듣고 박씨 두 눈에선

또다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구나.

박씨 논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고 난 후에

굳은 결심이 선 듯 두 눈에 눈물을 훔치고 나더니

논개 손을 부여잡고 지극하게 바라보며

“논개야 가자. 도망가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든 살든 벗어나자 어서가자 도망가자

달도 없는 한밤중에 칠 흙같이 어두운 하늘

또렷한 별빛만이 반짝이며 흐르는 밤

옷 보따리 부여안고 딸의 손을 움켜쥐고

더듬더듬 어둠을 헤치며 한발 두발 내딛는구나

갈 곳은 육십령 너머 봉천마을 친정집이라

길 없는 길을 찾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아서는 나무수풀 찍고 때리고 베고 찌르고

고통과 설움 떨쳐버리고 새 운명을 찾아가자

한겨울 밤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저고리 속 흐르는 땀에 온통 몸이 젖는 구나

가자가자 어서 가자 살 곳 찾아 어서 가자

15. 논개 모녀의 추포·압송

박씨가 어린 논개와 경상도 안의현 봉천마을 친정집에 숨어들었을 때

대곡리 부자 김풍헌은 뒤늦게 논개 모녀의 도망사실을 알고

사방팔방 찾아보았으나 알아낼 길 전혀 없어

장수관아에 주달무와 박씨녀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송사를 하는 구나

소송을 접수한 장수관아에서는 곧바로 사령을 급파하여
 주달무와 논개 모녀를 찾는데
 박씨가 친정집에 숨었을 것을 짐작하고 들이 닥치는데
 사령놈들 거동보아라 이런 행패가 어딴는가
 사립문을 박차더니만 안마당을 가로질러
 아무 말도 하질 않고 흙밭로 올라서서
 이방 저방 구석구석을 제 맘대로 헤집는다
 시렁위에 그릇들이 벌벌 떨다 부서지고
 알곡자루는 찢러 터쳐 땅바닥에 나뒹굴고
 옷가지 이부가지 살림살이 던져내고
 간장 된장 장독까지 와장창 폭삭 깨지는구나
 겁에 질려 떨고 섰던 집주인이 참다못해
 “이 무슨 행패요, 대체 어디서온 사령인데
 다짜고짜 남의 집을 뒤흔단 말이요!”
 우두머리 사령이 췌려보며 하는 말이
 “다 알고 왔다 죄인들은 어딴느냐
 이집구석 기둥뿌리까지 통째로
 뽑아 버리기 전에 얼른 아뢰어라”
 “무슨 연유로 이러는지 모르겠소”
 “오냐 좋다. 우리가 찾아내면
 그때는 각오해라 살살이 뒤져”
 그때여 다락 속에 쥐죽은 듯 숨어있던
 박씨부인 뛰쳐나오며 “나 여기 있소 그만하십시오”
 어린 논개도 울음보 터져 천지사방을 찢는구나
 사령들 달려들어 박씨 머리채를 휘감아 잡고
 앞마당으로 끌고 나와 박씨 두 손을 포승줄로
 꼬꽂꽂 묶어 매여 장수관아로 압송한다.
 어린 논개도 울며불며 어미 뒤를 쫓는구나.

16. 운명의 재판

장수관아에 압송된 지 수 일 후에 재판이 열렸는데
형방이 소장을 줄줄이 읽어 내려가는 내용인 즉
대략 이러하였다.

지난 해 모월 모일 김풍헌은 혼기를 넘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던 터에 하루는 주달무란 이가 찾아 와서
얼마 전 아버 잃고 처지 딱한 자신의 질녀 얘기를 꺼내며
민며느리로 데려가도록 해 줄 터이니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고
얼마만의 돈과 땅을 요구하며 흥정을 하였다.

김풍헌은 처음 주달무의 제의를 받고

“어찌 어린 질녀를 대상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며
나무리기까지 하였으나 주달무의 청이 워낙 간곡하고
온전치 못한 자식을 둔 애비로서

자식생각에 할 수없이 모른 채 받아 들였다가 이지경이 되었다며
혼례를 빙자한 강상죄인 주달무와 박씨녀는 큰 벌로 다스리고
어린 논개는 약조대로 민며느리로 데려 가겠다 하는구나

이때여 동헌마루에 앉은 이가 최경회란 인물로서
유학의 진리와 법칙을 배우고 익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으며,
충효를 바탕으로 인의예지신 도리를 지키는

깨끗하고 담백한 성정의 청백리로서 훗날 고을 사람들이 감복하여
선정비까지 세웠던 벼슬아치들 중 보기드문 명현감이었다.

장수현감 최경회가 형방의 소지내용을

가만히 듣더니만 “피고가 본디 박씨일인가”

형방이 아뢰기를 “쇠지에 기록된 피고는

주달무와 밀양박씨 둘이 온데 주달무는

종적을 알 수 없으니 박씨를 문초하여

공범의 행방을 물어야 마땅한 줄 아옵니다.”

최경회는 동헌 뜰에 납작 꿇어 엎드려

사시나무 떨어대듯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씨녀와 계집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형구를 물리거라 죄의 진상이 들어나기 전엔
 문초를 하지 않겠다.” 형구를 물린 후에
 “박씨는 김풍헌의 소지내용을 모두 인정하느냐”
 추상같은 호령으로 박씨에게 묻는 구나
 깜짝 놀란 박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아니오 절대 진실이 아니오이다”
 “소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거짓을
 아뢰시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예 아뢰리다 원네가 아뢰리다
 원네는 신안 주씨 주달문의 과녀이옵고
 이 아이는 원네의 딸자식 논개오이다.
 지난해에 지병 앓던 지아비와 사별하고
 과부되어 어린 딸과 근근덕신 살던 차에
 여러 차례 시동생 주달무가 찾아와서
 우리 모녀 불쌍타며 같이 살자 졸라대어
 아무런 눈치 모른 채 이사하여 살았는데
 하루는 김풍헌댁 늙은 여종이 찾아와서
 사주단자 내밀기에 깜짝 놀라 되물으니
 자세히 이르기에 원네는 그때서야
 갑작스런 봉변의 모든 내막 듣게 됐고
 시동생은 벌써 돈을 챙겨 달아났고
 김풍헌은 어린 여식 데려가겠다 으름장을 놓고
 죽자 허니 어린 여식 홀로 두고 죽을 수 없는 일
 살자 허니 딸 뺏기고 온전하게 살수도 없는 일
 하루에도 죽자 살자를 수백번씩 뒤집으며
 고통의세월 보내다가 도망을 했나이다.”
 박씨부인 눈물로 온 몸을 적시는구나
 최경희가 차분하게 그 말 듣고 이르기를
 “오 그래 박씨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매매혼이요 강제혼사다.
 어미인 박씨에게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인 혼사를 밀어 부친 김풍헌이

도리어 윤리와 도덕 벗어난 죄인 안인가
 김풍현이 이말 듣고 성난 얼굴 치켜 들어
 최경회를 쏘아 보며 목청 돋워 말을 한다.
 “이보시오 현감나리 내가 바로 피해자요
 내가 비록 벼슬 없이 향촌에 묻혀 사나
 강상윤리(사람도리)도 모르는 소인배는 아니외다.
 어찌하여 현감께선 장부 말을 아니 듣고
 미천한 아녀자 말만 믿으려 하신단 말이오
 거짓이외다 거짓말을 아뢰고 있소이다.
 이것은 명백한 혼인빙자 사기외다
 저 아녀자와 주달무가 공론한 사기혼이외다
 저 아녀자가 거짓으로 우롱하고 있소이다.”
 그 말 듣고 박씨부인 죽은 힘을 다하여
 “아니오 아니외다 공론이라니 당치 않소
 하늘 땅에 맹세하고 거짓이 아니외다
 원네 말이 거짓이면 천벌 받아 마땅하오
 어린 자식 앞에 두고 어찌 거짓을 알외리까
 제발 부디 원네 말을 믿어 주시오”
 최경회는 그 말 듣고 두 눈을 감는구나

17. 논개와 최경회의 첫 만남과 재판의 종결

최경회가 슬며시 눈을 떠 동헌 뜰을 내려보니
 박씨 곁에 쪼그만 어린 딸이 웅크리고 붙었는디
 서슬 푸른 분위기 속에서도 놀라거나 울지도 않고
 뚫뚫하고 야물딱진 표정으로 별빛 같은 눈망울을 반짝거리며
 최경회를 뵈히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니 얼른 고개를 떨구는게 아닌가
 손녀딸처럼 귀엽기도 하지 이것이 운명의 만남 첫 대면이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이 때 최경회의 나이는 사십 칠세였다.
 최경회 입을 열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논개라 하옵니다”

“네 나이 몇 살이냐”

“다섯 살이옵니다”

이것이 먼 훗날 하늘이 맺어줄 두 연인의 첫 만남이자 대화였다.
최경희가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한다.

‘다섯 살이라 열다섯도 아니고 다섯 살이라’

이후 몇 차례의 심리 재판이 계속되며
박씨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김풍현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나
핵심인 주달무가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죄를 주달무에게 뒤 집어 씌우는 구나
허나 재판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일
드디어 판결문을 읽어 내리는 데,

이 사건은 피고 주달무가 체포되지 않았다 하여 언제까지 판결을 미룰 수는 없는 일, 지금까지 여러 정황과 진술을 참작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심사숙고 판단할 때 조선의 법률로 남자는 십 오세, 여자는 십 사세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여 이보다 연소한 자의 결혼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부모가 모두 사망시엔 아버지 형제가 대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생모인 박씨가 정혼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혼사는 마땅히 파기 되어야 옳으며 또한 남녀가 정혼할 시 불구이거나 수양자인지 따위는 반드시 양가 확인을 거친 뒤에 혼인서약을 하는 게 도리이거늘 이 또한 사전에 몰랐다면 혼사가 파기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후일 주달무가 체포되면 박씨와 김풍현이 삼자대면하여 진상을 밝히고, 새롭게 죄가 밝혀진다면 그 때 가서 처벌하고 오늘 부로 사건을 임시 종결하며 박씨를 무죄석방 하노라! 이 장황한 얘기가 최경희와 논개의 운명적 만남얘기였다.

18. 갈 곳 없는 논개 모녀의 신세

어렵고 힘겨운 송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논개 모녀가 웬일인지 동헌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옆뜨려 있어 최경희가 이상히 여겨

“재판이 모두 끝났는데 어찌하여 물러가질 않는 게냐 이제 어디로든

좋으니 자유로이 가서 잘살거나”, 부드럽고 자정한 듯 말을 건네니 박씨부인 이말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호소한다.

죄가 없다 판명되어 누명은 벗었으나
어린 자식 데리고서 돌아갈 곳 없나이다
살던 집으로 가자 하니 김풍헌의 세도속에
원망과 학대 위협과 공포 두려워서 갈 수 없고
친정집에 가자하니 출가외인 신세로서
부모형제 누가될까 면목 없어 갈수 없고
우리 모녀 나서면은 당장 갈 곳 없사오니
거처를 찾을 때까지(구하도록)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발 부디(간절하게) 비나이다.
곳은 일이든 고된 일이든 마다 앓고 하리다.
부디 이곳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허 이게 웬일이냐 예기치 못한 문제로다. 딱한 일이로다 딱한 일 아무리 장수현감이라도 임의로 논개 모녀를 관아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 내아의 허락을 얻어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만 머물기로 하는구나. 이리하여 논개는 최경희와 점점 더 깊은 인연을 맺는구나. 그때여 장수현청 내아에는 현감 최경희의 본부인 나주김씨가 있었는데 논개 모녀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불러들여 박씨에게서 자초지종의 딱한 처지를 듣더니만은 나주김씨는 박씨의 덕성스러움과 예의바름에 호감을 갖고 어린 논개의 총명함에 마음이 끌려 내아에 머물 것을 주문하는구나 “내일부터 안채에서 내 시중을 들도록 해라” 돌아갈 곳이 없는 논개 모녀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일년 가까이 지낼 적에, 최경희가 장수현감에서 무장현감으로 옮겨가게 되었구나 이 때에 나주김씨 최경희에게 바느질 솜씨와 부엌살림 솜씨가 좋고 심성고운 논개 모녀도 데려가자고 권하니 최경희는 논개 모녀 불러 들여 장차 일을 묻는구나. 이에 박씨부인이 노비로 삼아도 좋으니 함께 데려가 달라 간청하여 최경희는 김씨와 의논한 끝에 관아의 침방관비로 등재하고 정식 수행원 삼아 무장으로 함께 떠나갔겠다. 그때부터 논개모녀는 나주김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최경희와 함께 무장현감에서 영암군수 영해부사로 옮겨 다닐 적에 최경희나 나주 김씨가 아무리 인품 좋고 후덕하다 하여도 이때는 종과 상전의 구분이 있는 세상이라 논개 모녀는

노비아닌 노비로서 다른 노비들과 별다를 리 있었겠는가.

19. 조선은 양반의 나라

조선은 양반의 나라 귀하고 높으신 양반나라
천한 것들 밤낮없이 온몸 받쳐 일하는 세상
일이란 모두 노비의 것 호사는 모두 상전의 것
어둔 새벽 일어서서 늦은 밤 누울 때까지
마당 쓸고 문짝 닦고 불 피우고 밤을 짓고
명석 짜고 쇠뿔 치고 새날리로 도랑치고
여물주고 물을 길고 누에치고 베를 짜고
가마 메고 나무하고 고기잡고 농사짓고
행주질 걸레질 바느질 절구질 양반님네 떡방아질
세상만사 모든 일이 노비 것이다.

노비라 함은 상전의 재산이라
팔고 사고 사고팔고 맞바꾸고 물려주고
젊고 건강하고 잘생긴 놈은 비싼 물건
계집종은 새끼 치니 사내종보다 비싼 재산
생긴 것은 사람인데 소 돼지 짐승 취급
말을 하는 집짐승 걸어 다니는 재산이라
노비는 애초부터 종자가 다르고
부모가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라네
노비 문서에 한번 오르면 대대로 물려받아
자식들도 노비신세 벗어날 길 전혀 없네
고귀하신 양반님네 자랑삼아 지꼈이길
노비는 교활하고 게으른 족속이라
회초리와 몽둥이로 다스려야 하는 법
매질에 명석말이 자근자근 밟아 대어
배를 깔고 땅을 기계 노비는 노비답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상전에겐 복종이다 무조건 복종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코와 귀가 잘리고
힘줄이 끊어지고 난장질을 당하고
어떤 짓도 괜찮다 목숨만 붙여놔라
조선 사람 천만 중에 삼백만이 노비라네
굶주림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된다 먹고 살기 위하여
온갖 수난 다 겪어가며 질긴 생명줄 이어간다
저 양반 놈 거동보아라 사노비를 늘리려고
굶주린 사냥감 찾아 오늘도 덫을 놓는구나.

20. 논개 모친의 죽음

꽃이 피어 춘절이요 잎이 닳아 하절이라
오동낙엽에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아니 동절이냐 세월이 흘러 논개 나이가 십 이삼 세가 되었을 제
논개 모친 박씨가 고단한 세월 속에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던 차에
불쑥 더하던 어느 날
두 눈에 가득한 눈물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꿀꺽 꿀꺽 삼켜가며 말을 한다.
현감 어른과 안방마님은 생명의 은인이다
고맙고도 고마운 분들 진심으로 공경해라
은혜를 갚지 못하면 사람도리 아니니라
부디 꼭 두 분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야 한다.
예 어머니 명심하여 따르리다.
네 아버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낳았으되 우리자식이 아니라며
네가 비록 여식이나 사주가 특별하여
장차 큰일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스러워 하시더니
나도 너를 홀로 두고 속절없이 가는가 보다
어머니 어찌 이리 약한 말씀하시오

이 약을 드시웁고 어서 일어 나서야지요
미안하다 논개야 아무 것도 주지 못하는
못난 어미를 부디 용서해라
그런 말씀 마시웁고 제발제발 일어나시오
병상을 지키며 밤을 새던 논개가
새벽 녘에 깜빡 졸다가 깨어보니 이상하지
어머니는 살포시 웃는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먼 먼 길을 떠나셨구나.

21. 사도시정 최경회를 수행하다(당파싸움).

하나하나 통과의례를 거쳐가 듯 가혹한 일을 격어 가며 어느 덧 논개
는 훌쩍 자란 십사세가 되었을 제 정해년, 서력으로 1587년 최경회 나
이 56세때 변방으로만 옮겨 다니던 최경회는 영해부사로 있던 중에 사
도시정이란 중앙관직을 임명받았것다. 그때여 부인 김씨는 여러 해 짜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워 곱곶이 궁리한 끝에 논개를 불러 이르기를
“부사 어른이 사도시정으로 임명하실 때 네가 가서 모시도록 해라.
네 나이 어리지만 웬만한 살림은 능히 보살 필 수 있거늘 어른께서 불
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모시도록 해라” “예 마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
사옵니다.” 논개는 사도시정 최경회의 시비로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지극정성으로 삼년을 모시는구나. 그 때여 한양의 고귀하신 벼슬아치
들께옵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그 모습을 볼작시면
백성들의 살림살이 날로 점점 궁핍하고
변방의 오랑캐는 민심을 뒤흔들고
바다 건너 왜놈들은 침략을 위협하는데(서두르고)
벼슬아치들 당파 싸움은 날 새는 줄 모르는구나
훈구파와 사림파가 서로 죽고 죽이더니
동인으로 나뉘고 서인으로 나뉘구나
동에 살어 동인이오 서에 살어 서인이라
동인이 득세하다 서인에게 꺾이고
서인이 득세하다 동인에게 쫓겨나네

서로가 혈뜬고 제 낮에 침을 뱉고
한목소리로 부르짖길 충성 충은 우리편
증오의 씨앗에서 움틔운 게 동이요
원망의 씨앗에서 움틔운 게 서이요
동과 서가 마주 붙어 전쟁을 벌이는구나
죽고 또 죽이는 피투성이 아수라판
피가 피를 부르고 화가 화를 부르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벼슬아치는 싸워죽고
피 흘리고 피 흘려도 무엇이 부족한지
정여립이란 이가 역모를 꾸몄다며
음모하여 죽은 이가 무려 일 천명
세상이 썩었구나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22. 논개 나이 열일곱

사도시정 최경희는 혼돈의 세월을 잡음과 구설 없이 용케 살아 넘기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적에 경인년 서력 1590년에 담양부사를 임명 받
는구나 최경희가 논개와 한양에서 내려오자 화순 본가에 머무르던 김
씨부인도 담양 내아로 옮겨왔는데 삼 년 만에 재회한 김씨모습에 병색
이 깊게 들어있구나 하루는 논개가 김씨부인의 병 수발을 하는데 김씨
부인이 논개를 자세히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아닌가.

김씨부인 혼잣말로 이 계집애가 어느 덧
음기를 물씬 풍기는 처녀가 되었구나
잘록한 허리와 오뎅 솟은 엉덩이
앞가슴도 봉긋한 것이 계집구실 하겠구나
논개야 네 나이가 올 해로 몇이더냐
갑작스런 물음에 논개 섬짓 놀라며
열일곱이옵니다. 벌써 그리 되었구나
열일곱이면 혼인할 나이가 되었는데
논개는 고개 숙여 얼굴을 붉힌다.

23. 최경희의 부실되다(사랑가).

논개가 지극 정성으로 살피는데도 김씨 부인 지병은 나날이 지병이 깊어만 가는구나. 하루는 김씨 부인이 부사 최경희를 내아로 불러 이르기를 “영감님 오늘 저의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들어 주시오” 부사 최경희가 어리둥절 하여 “부인의 청이란 게 대체 무엇이요”

“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덕행 있는 부실을 들여 부부지정 잇는 모습을 보고 떠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게 무슨 요망한 말씀이요”

“불문곡직하고 저의 소망을 들어주시오”

“허허 나원 참” 최경희가 난감해 하고 있을 적에 김씨부인은 한방에 있던 논개에게 말을 건네길.

“논개야 내가 이제껏 지켜본 바로 너는 신분과 나이를 떠나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부디 내 마지막 부탁을 거절치 마라” 하더니만 금가락지를 논개 손에 끼주는게 아닌가. 김씨의 청대로 최경희와 논개는 부부지정을 맺었고, 김씨는 달포를 더 살았다던가. 이때 최경희 나이는 59세요 논개는 17세였다.

아무리 김씨 부인의 청이 있었다지만 나이 많은 최경희와 나이 어린 논개가 맺어진 것은 존경과 동경, 동정과 연민만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사랑의 신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을 얻었네

사랑 사랑 크나큰 사랑 사랑을 얻었네

언제 어디서 찾아왔는가 어찌 무엇이 다가왔느냐

아득히 먼 하늘 끝에서 별똥별 같이 떨어졌는가

만경창과 푸른 물결을 두둥실 둥실 타고 왔는가

기적같이 찾아온 사랑 눈부시게 신비한 사랑

신령스럽고 기묘한 사랑 은근슬쩍 다가온 사랑

깨끗하고도 맑은 사랑 간절하고 애뜻한 사랑

신분을 넘어 나이를 넘어 서부렁섭적 찾아온 사랑

정열과 순정을 모두 바쳐서 소원했던 그 사랑이야

세상 만물이 다변해도 이내 사랑은 변할 수 없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허둥둥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크나큰 사랑 사랑을 얻었네

24. 최경희의 모친상 (님 그리움)

하늘의 뜻으로 부부지정을 맺어 춘몽같은 나날을 보낸 지
칠 팔삭이 되었을까.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는구나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살아생전 곁에서 봉양하지 못했던 모친의 삼년상을 모시려고 최경희는
담양부사를 사직하고 본향 화순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논개는 첩의 신분이라 동행하질 못하고 장수 땅에 머물러
기다릴 수 밖에 없었구나

이리하여 두 사람이 눈감짝할 사이 찰나같은 춘몽을 떨치고 길다면
긴 이별을 하게 되었구나

하루가고 이틀가고 열흘가고 한달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님의 생각이 간절하구나
천지간에 의지할 이 오직 한사람 그대뿐
헤어져 먼 곳 있는 그리운 님이시여
불어오는 바람결에 님의 소식 전해올까
두리둥실 뜬구름에 님의 소식 물어볼까
긴긴 밤 잠 못 들어 꼬박새운 새벽녘
이불 쓰고 잠을 청하니 사랑하는 당신의 꿈
그립고 보고파서 꿈길에나 만날까
임 찾아 나섰더니 님도 날 찾아 나오셨네.
님의 모습 아련하게 보일 듯이 사라지고
꿈을 깨니 등잔불 그림자만 외롭구나.
그리움을 지우려고 눈물 흘려 씻지만은
끝없이 그대를 그리는 내 마음은
천리를 이어가는 큰 강물로 흐른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주강산에 비친 달아
우리 님이 계신 곳에 이내 모습 전해다오

이제 다시 만나면 헤어지지 않으리라.

25. 임진왜란

동인에게서 서인에게, 서인에게서 동인에게,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 되고,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동인과 서인의 입장이 달라 전쟁이 있다 없다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인의 승리로 전쟁은 없다로 결론지어졌다.

오랜 당파싸움에 백성들만 터지고, 군역이 무너지고 국고는 텅텅 비고 고여 섞어가는 물과 같은 조선, 바람 앞에 놓인 촛불 같은 형세라. 삼천리 방방곡곡을 왜놈 밀정들이 득실거리며 메주 밟듯 누비고 다니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사월 십삼일 조선을 침략한다.

“명나라와 조선을 통합하여 대 일본의 도움을 북경으로 옮기고 영토를 그대들에게 고루 나눠주겠노라.

대 일본은 신의 나라이므로 전쟁에 지지 않는다. 절대로 질수 없다. 나 태양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따르라. 돌격, 도수께끼.!”

조선의 새벽 은은한 바다안개를 헤치며

침략의 군사를 싣고 (수)칠백여척의 전선이

밤손님 발걸음처럼 부산포에 당도한다.(조용히 당도)

임진년의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전쟁이다!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이다!

땅 땅 따다다다당 쉬이익과광 우르르광광

우박이 쏟아지듯 조총소리 따다다다당

하늘이 무너지듯 대포소리 우르르광광

불화살이 날르고 창과 칼이 춤을 추고

찌르고 쏘고 찌고 찌고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바뀌는 듯

화염이 집들을 휘감아 훨훨 타고

(집들이 따그르르르 불길이 훨훨 타고)

머리위로 등 뒤로 총알이 솟솟 날고

사람 사람들이 때 지어 울부짖으며

“왜놈들이 총질한다! 집집마다 불 지른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여”
 찾는 소리 부르는 소리 통곡소리 아우성 소리
 죽고 또 죽이는 피투성이 아수라판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구나
 왜군 선봉장 고니시가 부산진성을 공격한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사냥 나갔다 소식 듣고
 다급하게 성안으로 돌아와 방비 하는구나
 성안은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난장판
 정발 명하여 이르길 “소경악사를 불러라!
 통소를 불게해서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켜라 “
 고니시는 부산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을 비우고 길을 비켜줘라, 그러면 살려 준다”
 침묵으로 대답이 없자 공격이 시작 되는구나
 한 부대는 뒷산에 올라 아래를 향해 조총을 쏘고
 다른 부대는 사다리 걸고 성벽으로 기어오르고
 “물러서지 마라. 칼을 들어 사다리 끊어라, 활을 쏘라”
 병사들을 독려하는 정발의 쏜소리 처절하구나
 군민 모두 합쳐 고작 천명 상대로 정예군 일만 팔천명
 월등하게 우수한 일본군 조총을 당할 수 있는가
 새벽녘에 시작된 전투 한나절을 넘기고
 해질녘까지 이어지며 싸우고 또 싸우고
 “포기하지마라 조금만 더 조금 더 기운을 내라”
 “으.... 싸워야 끝까지 싸워야....”
 어디선가 날아온 조총의 탄환이
 정발의 투구를 뚫고 머리를 명중하는구나
 부산진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전멸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산 것은 모두 도륙되었구나
 이 처참한 패전이 임진난의 첫 싸움
 허나 이게 웬일이냐 부산진성의 철저한
 패배로 끝나지 않고 동래성이 양산성이
 언양성과 김해성이 경주성과 창원성이

영천성 성주성 충주성이 참혹하게 무너졌구나
 조선군은 저항 한번 못하고 추풍낙엽이라
 오월 초 사흘 날 일본군의 선봉부대가
 부산포에 상륙한지 꼬박 스무 날 만에
 고니시의 제 일 번째 가통의 제 이 번째
 구로다의 제 삼번째가 거침없이 위풍당당하게
 조선의 수도 한성에 입성하기에 이르는구나
 너무나도 쉬운 싸움 거저먹기 전쟁이로다
 태평성대 진실로 충신도 많더니만
 어디로 간 것일까 어디에 숨었는가
 입만 열면 충성 이오 잠꼬대도 애국이라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고
 뻔쳐오른 충성심이 해를 뚫을 정도라네
 넘쳐나던 충신 넘쳐흐르던 애국자
 밀물처럼 불길처럼 몰아치는 전쟁 통에
 줄을 지어 살길 찾아 도망하고 숨는구나
 백성을 지켜야 할 병사 수사 군수 현감
 벼슬아치들 아랑곳없이 너도나도 줄행랑이라
 떨쳐입고 호령하던 관복 벗어 내던지고
 목숨을 구걸하려 백성 속에 숨는구나
 “전하 종묘와 사직이 모두 이곳에 계시운데
 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이옵니까. 아니되옵니다, 전하.
 한성을 버리시면 아니되옵니다. “
 임금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잡아떼고
 도성의 사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돈화문을 빠져나가 임진강으로 개성으로
 평양으로 영변으로 의주로 도망쳤구나
 금덩이를 끌어안고 허겁지겁 달아난 왕은
 의주보다 더 먼 북쪽 천자의 나라 품속
 명나라로 건너가 귀화하려 했었구나
 한나라의 왕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말이나

26. 최경회의 의병출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군은 거리낌 없이
평양과 함경도까지 무참히 짓밟아 버렸었다.
허나 이게 웬일이냐 육지에서의 추풍낙엽 승승장구와 다르게
해전에서 이순신이란 복병을 만나 거둬 참패를 당하는구나
이리하여 도요토미는 새삼 호남지방으로 눈길을 돌리는데
곡창지대 호남을 장악해서 이순신의 군량미 보급을 끊어 해군력을
약화시켜 바다를 손에 넣고 일본군의 안정적인 식량기지를 확보하여
대륙 명나라 점령을 위한 진출도 넘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호남지방까지도 침략을 받으며 부패한 정권 조선의 운명이
점점 더 기울어 가는데 진흙탕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
들불처럼 일어나는 의병들이 있었으니
그때여 최경회는 전란의 비보를 듣고
황망한 마음 가눌 길 없어 안절부절 못하던 차에
의로운 선비들의 거병소식이 들리더니만
고경명이 거병하여 참전을 권하는구나
최경회는 상중이라 나설 수는 없었지만
국가존망이 위태하여 참전을 결정하나
일년 반의 시묘살이로 건강을 잃어버려
대신하여(본인대신) 조카 홍재를 의병으로 보내는구나
하루 이틀 가시방석에서 세월을 보낼 적에
보름이나 지났을까 조카 홍재 돌아와서
고개를 떨구면서 “숙부님, 뵈 면목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이나? 고경명을 만났느냐? 전투는 어찌되었느냐?”
조카 홍재 이르기를 금산성 전투에서
왜놈들에게 패배하고 고경명이 전사했다고
최경회는 이말 듣고 비통하게 울음 짓더니
앞장서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워 하였는데
오늘날 벗을 잃고 나라를 유린당하니
어찌 이내목숨 아깝다 하겠느냐

가자 싸우자 온힘 다하여 싸우자
최경회는 설욕전을 다짐하며 출정한다.

27. 골자부대(최경회와 논개의 재회)

최경회는 고경명 부대의 맥을 이어 전라우의병장의 책임을 맡고 의병을 모집하고 전투준비를 하는데 또 다시 패하지 않으려면 병사를 보강하고 전술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라, 적당한 근거지를 찾으니 장수 땅이 적격이었다.

장수는 최경회가 선정을 베풀며 현감으로 있던 깊은 인연이 있는 곳으로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터, 모병과 병참이 유리한 곳이고 지리적으로도 왜군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왜군이 장악하고 있는 경상도와 가까워 주둔지로 삼기에 맞춤이라. 게다가 장수땅엔 논개까지 있지 아니한가.

장수 땅 장계 월강평야에 의병청을 마련하여 골자부대라 이름 짓고 깃발을 높이 세워 의병을 모집하여 훈련을 하는구나
골자부대라 골입아군의 의미. 즉 송골매 골자로 ‘송골매가 날아들면 갈까마귀떼가 놀라 흩어진다’ 는 뜻이었다.

이리하여 전란 중에 최경회와 논개가 굶고 짊은 만남을 갖는구나

그리운 님이 왔네 기다림이 돌아왔네

수백의병 거느린 장수가 되어 돌아왔네

누군가의 자식이며 남편이며 아비이며

모두를 버리고 떠 나온 용사들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의에 살고 의에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

의병들의 모습에 비장함이 감돌고

장수의 장한 모습 슬프도록 아름답구나

그리운 님이 왔네 기다림이 돌아왔네

십 년여를 가까이서 모셔왔던 그분이건만

얼마나 깊은지도 높은지도 알 수가 없네

의롭고 경외로운 장군의 모습은

존경하고 흠모하는 내 사랑 크나큰 사랑
 오랜만에 최경화와 다시 만난 논개는
 무겁고도 중대한 짐 짊어진 님을 도와
 의병들 뒷바라지에 온몸 던져 나서는구나
 아녀자들 동원하여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바지와 바느질로 밤낮 없이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려면은 시키고 부리기보다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먼저 나서 일을 하니
 아녀자들 탄복하여 앞다투워 일 하는구나
 한번쯤은 생색내고 공치사도 하련마는
 꽃다운 방년에 어찌 저리 의젓한가
 영락없고 빈틈없는 의병장의 젊은 마님
 처신이 남 다르고 행동이 다르구나
 그러면 그렇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장군님이 사람하나는 제대로 보셨구나

28. 금산 · 무주전투

전라우의병은 장수 월가평에 머무른 지 달포쯤 지나
 전라감사 권율로 부터 무주 무풍으로 진격하여
 왜군의 전라도 침공을 방비하라는 군령을 받는구나
 이에 최경회는 병사들을 정비하여 주둔지 장수를 떠나
 목숨을 건 전장으로 출정을 하는데
 “논개야 이 난리를 잘 견뎌내거라. 살아있으면 언제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겠느냐 “
 “나리, 이기고 돌아오셔야 하옵니다. 살아서 꼭 다시 만나야 하옵니다.”
 짧은 정담을 뒤로하고 영이별이 될지 모르는 이별을 하는구나.
 논개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며
 애뜻한 정 숨기고 무심한 척 하지만
 흐르는 눈물에 입술을 깨문다
 천지신명 이시어 굵어 살피 주옵소서

골자부대 가시는 걸음걸음 무탈하시고
싸움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골자부대는 싸늘한 어둠을 헤치고
사생의 전장으로 한발 두발 전진한다.

‘북을 울려라! 쟁가릴 처라!

돌격하라! 둥둥둥둥 깨갱깨갱 깨개개갱

와아! -- 와아!--- 깨개개갱 두두두둥

최경회는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려

밤안개 자욱한 금산성 전투에서

왜적을 속이기 위한 전술을 펼쳤구나

별짚을 묶어서 말위에 세우고

병사들은 뒤에 앉아 고함치고 뚜드리니

적들은 혼비백산 공격하는 줄 착각하여

조총을 쏘대고 화살을 퍼붓는구나

골자부대 왜적의 탄환과 화살이

바닥나길 기다렸다 공격을 시작하니

왜적들이 속수무책 대패하여 퇴각하는구나

골자부대 승리! 와! -----

최경회 장군 만세! 와! -----

깨개개갱 두두두둥 와! -----

한번의 작은 승리로 만족할 수 없는 법

최경회는 무주 금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왜적의 퇴로로 예측되는 곳에다가

의병들을 매복시켜 기습공격을 퍼붓는구나

하루는 퇴각하는 왜군들의 정보 듣고

무주와 거창사이 우지치란 고개에서

골자부대 매복하여 적들을 기다리니

말을 탄 적장과 왜군들이 몰려오는구나

최경회는 적들을 예리하게 지켜보다

적들이 한꺼번에 들어설 무렵

돌격하라! 함성소리 우레같이 울리며

화살과 돌무더기 소낙비처럼 퍼붓는구나

화살에 꿰뚫리고 바위들에 찍혀죽고
 놀라서 달아나다 넘어져 깔려죽고
 전의를(싸울생각) 상실하고(아예없고) 도망만 치는구나
 “도망치는 적을 쫓아라!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총돌격을 명하고 멀리를 바라보니
 적장이 퇴로 찾아 몸부림 치는구나
 최경회 화살을 걸어 적장을 겨냥하여
 활시위를 힘차게 당겼다 놓는다
 최경회의 활숨씨는 소문난 명궁이라
 적장이 명중하여 말에서 떨어진다
 골자부대(의병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완벽한 승리 대승리를 거두었구나

29. 경상도 지원(영남으로 가자)

골자부대의 첫 전투는 이렇게 끝이났구나
 현대 우지치 전투에서 최경회가 쏜 화살에 맞아죽은 왜장의 몸에서
 뜻밖에도 귀한 물건이 나오는데, 고려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란
 그림과 도요토미가 하사한 언월도라는 귀한 칼이 나오는구나
 당시 그림 소재는 지금 분명치 않으나 언월도라는 칼은 현재에도 해주
 최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는구나
 아무튼 그건 그렇고 최경회에게 금산, 무주지방에서 패배한
 고바야카와 부대와 다른 왜적들은 경상우도 지역을 공격하여 위협에
 빠뜨리는데 경상우도가 다급하니 전라의병들에게 도와달라는 원군요청
 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하여 최경회는 골자부대 의병들에게 경상도 구원을 위한 출정을
 명하는데, 다른 장수들이 경상도 지원에 대한 부담함을 들어 완곡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부대는 애당초 호남지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어째서
 호남지방을 버리고 영남지방 구원을 나선단 말이오?”
 “배산역수의 땅이라며 근거 없는 멸시와 차별을 당해온 호남이 어찌

본래부터 잘나고 인재 많은 영남을 구원할 수 있겠소이까”
 최경희가 가만히 장수들의 말을 듣고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시오 조선이 있기 전에
 영남과 호남이 있었단 말이오
 호남도 우리 땅이오 영남도 우리 땅
 거룩한 의로써 장수된 사람들이
 어찌 멀고 가까움을 가린단 말이오
 어찌하여 고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라의 위기를 수수방관 한단 말이오
 좁은 땅을 쪼개서 이쪽저쪽 나누고
 봉당을 갈라서 너편 내편 싸우니
 어찌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오
 골자부대는 조선을 지키기 위한 의병이오
 호남만의 의병이 아닌 조선의 의병이오
 영남을 지키는 것이 호남을 지키는 것이오
 영남을 구원하러 떠남시다 갑시다

30. 1차 진주성 전투

이리하여 의병대장 최경희는 영남과 호남 최초 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여 성주의 왜적을 공격하며 영남지방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구나
 그때여 호시탐탐 호남진출을 노리던 왜군들은 전라도로 들어가는 통로
 를 뚫고자 진주성 함락을 목표로 삼만의 병력을 집결하여 진주성으로
 향하는데 이른바 임진년 시월 초 제 1차 진주성 전투가 이것 이렸다.
 “왜적들이 진주성으로 몰려온다.”
 이때여 성안은 김시민을 수장으로
 성밖에는 곽재우와 최경희의 의병들이
 철저하게 항전을 준비하며 기다릴 제
 왜적들이 천지를 뒤흔들며 몰려온다
 조총을 쏘아대며 일시에 공격한다

사다리로 개미떼같이 성벽을 타고 오른다
 김시민은 악공에게 피리를 불라해서
 성안군사 진정시키며 접전을 기다렸다가
 “지금이다! 공격하라!” 일제히 퍼붓는데
 활을 쏘고 포를 쏘고 불덩이를 날리고
 끓는 물과 돌맹이를 폭포같이 쏟아 붓고
 성밖에는 곽재우와 최경희의 의병들이
 뒤에서 달려들어 협공을 퍼붓는구나
 어때 뜨거라 아이쿠 머리야 나 죽겠다 도망가자
 활에 맞고 돌에 맞고 물에 데고 불에 데고
 베이고 잘리고 찢리고 뚫리고 꺾이고 터지고
 우왕좌왕 혼비백산 좌충우돌 진퇴양난
 엎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짓밟히고
 왜놈들의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성한 놈은 걸음아 날 살려라 줄행랑친다
 왜놈들이 물러간다! 이겼다! 와 -----
 왜군의 작전 의도는 완전히 무산되고
 진주대첩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으나
 아! 슬프도다 명장 김시민장군이 죽었구나
 어허 녀 어허녀 어이가리 녀차 녀화녀
 임진년 시월 첫 번째 진주성 전투의 승리는
 관군과 의병, 영남과 호남의병의 헌신으로
 조화를 이루어 빛어낸 값진 승리다
 영남출병 통하여 호남수호 주장했던
 경상도를 지켜서 전라도를 구하자는
 최경희의 해안이 입증이 되었구나

31. 님 그리워

진주성 전투 이후에도 경상도 일대에서 전라도 의병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었다. 한편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한 선조가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던 명나라 지원군이 임진년 끝머리가 되어서야
 당도하는데,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틈만 나면 약탈과 강간을 일삼아,
 명군의 횡포가 왜군보다도 정도가 심하여 백성들의 삶은 옆친데
 덮친 격으로 더욱 더 죽을 지경인데,
 조선의 벼슬아치들은 못 본채 할뿐
 항의 한번도 못하고 그저 멍호아 땅호아 굽신 굽신만 하는구나.
 어쨌거나 전쟁이 길어지며,
 우후죽순처럼 예기치 못했던 의병들의 항쟁이 이어지고,
 바다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활약
 추운 겨울을 대비치 못했던 왜군들에게 명군의 공격까지 가세하니
 해를 넘겨 계사년 들어서며 왜군들은 평양에서 철수하고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전투이후 봄이 되어 한양철수.
 남으로 남으로 후퇴하여 장기전을 대비하는구나
 그때여 최경희는 1차 진주성 전투이후 성주, 개령등 여러 번의 전공을
 세워 명성이 크게 드러나고 무장으로서의 재능도 인정받아 계사년
 1593년 4월 21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맡게 되었구나.
 허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 능력으로 볼 때 최경희보다 뛰어난 정인홍
 이나곽재우 같은 경상도 출신 의병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우
 병사에 전라도 출신 의병장을 임명한 저의가 무엇인지.
 아마도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던
 망국의 당파와 지방색이 작용한 건 아닐런지.
 결국 경상우병사 최경희의 발탁은 이후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노골적인 갈등으로 들어나는데
 그나저나 장수 땅의 논개는 어찌 지내고 있었는가
 가끔씩 들려오는 골자부대의 승전 소식이야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마는
 승리의 기쁨이야 말로 무수한 피의 댓가가 아니더냐
 장군님이 무사하시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승리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죽음을 생각하면 논개의 얼굴은 썩하고 개었다 금방 다시
 흐려진다.

“장군님께서 이번 싸움도 승리하셨답니다.”

“장군님은 무사하시오?”

“그러므로. 무사하다마다요.”

논개 이 말 듣고 졸이던 가슴을 풀어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은
 승전보의 기쁨이 어찌 마냥 기쁨인가
 이번에는 얼마나 희생이 있었을까
 죽은 자는 승리하려 목숨을 바쳤건만
 승리는 더 많은 주검을 달라하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 버린단 말이나
 시시때때 달려드는 죽음의 공포 속으로(에서)
 뚜벅 뚜벅(꽂꽂하게) 걸어 들어간(당당한) 나의 님은 누구인가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의에 살고 의에 죽기로 맹세한 나의 님
 떠나간 그대는 돌아올지 못 올지
 그리운 나의 님 언제 다시 만나려나
 촛불은 님 그리는 내 맘을 대신하여
 제 몸을 태워서 눈물로 날 밝힌다
 예부터 전장에서 살아온 이 몇몇이더냐
 님이시여 무사하소서 님이시여 살아주소서
 꿈과 생의 구별 없이 근심 걱정만 가득하구나

32. 논개 장수 떠나 최경희에게 (재회)

이렇게 장수 땅에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논개가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근심걱정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부산으로 집결
 한 왜적들이 근간 중에 총력을 기울여 진주성을 칠 것이란 소문이 파
 다하여 논개의 귓전까지 와닿는구나
 논개 이 소문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경희는 경상우병사를 맡고 잇는지라,
 진주성에서 또다시 큰싸움이 벌어진다면 피할 도리가 없거늘.
 ‘이 일을 어찌나 저찌나!’
 ‘혹시 지금의 이별이 영 이별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근심 근심 걱정 걱정이 눈뭉치처럼 커지고

강물처럼 불어 견딜수가 없구나.

결국 논개 떠날 결심을 하는데

“그래 가자, 떠나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남을 찾아 떠나자.”

논개는 두려움을 떨치고 남장으로 변장하여

거칠고 험한 길을 조심조심 떠나가는데,

‘장수 땅아 잘 있거라! 정든 고향 떠나간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언제 다시 오랴느냐. 어이가리 어이가리 님 찾아 험한 길 어이가리.’

경상도 산청 오부를 지날 적에

갑자기 숲속에서 괴상한 짐승들이

소릴 지르며 뛰쳐나오는데 논개 겁에

질려 꼼짝달삭 못하고 가만 웅크리고 살펴보니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왜놈이 아니더냐.

왜놈들은 논개가 여자인줄 알았으면

난리를 내도 뭇 난리를 냈을 것인데,

설마 여자인 줄은 짐작 못하고

포박하여 어디론가 끌고가는구나.

그때여 논개는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되는가 보구나’

‘쓸데없이 나섰다가 결국 이런 화를 당하는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끌려가는데, 이게 웬일이냐

논개가 죽을 때가 되질 않았다는 하늘의 뜻인지

갑자기 사방에서 우레 같은 함성이 터지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몰려들더니

혼비백산한 왜적들을 별단 쓰러뜨리듯 베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논개는 때마침 진주성 사수문제를 논의코자 의령으로 찾아가던

충청병사 황진이란 장군을 만나 구사일생 목숨을 구하는 구나.

이리하여 논개는 충청병사 황진 장군에게 자신은 누구이며

최경회와의 관계등을 소상히 밝히고

의령까지 안전하게 동행을 하는구나

그때여 최경회는 의령에 먼저 당도하여 있을 적에

갑작스런 논개의 등장애 깜짝놀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안이 멍멍한 모습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데 논개 무릎꿇어

“나리 소첩의 체신 없음을 용서하소서”
 전후 정황과 자신의 돌연한 행동에 대하여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구나
 최경회는 논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싸움터
 밀려오는 두려움 휘몰아치는 죽음의 공포
 전쟁은 남녀노소 가릴 없이 먹어치우고
 악인과 선인 구별 없이 먹어치우는 아귀라
 왜군의 진주성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 왔다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약속했지만
 온 강산이 왜적들의 발아래 짓밟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었다고
 홀몸으로 남장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왜놈들에게 붙잡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마냥 반길 수도 가상하다 칭찬할 수도
 허허 이거 변고로다 괴이한 일로다
 평범한 여인들의 생각은 아니구나
 논개는 다르구나 범상치 않은 여인이다.
 최경회는 놀라움도 노여움도 지난 후에
 다정하게 말을 한다. “다치지지는 않았느냐”
 “다행하고 고마운 일로구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야 말로 하늘의 뜻이로구나 “
 최경회는 하늘의 뜻으로 살아 돌아온 논개를
 떼어놓지는 못하고 진주성으로 함께 가는구나

33. 수성파와 공성파의 대립

한양에서 퇴각한 일본군은 진주성을 점령한 뒤 경상도와
 전라도를 정복하고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계획하는데
 도요토미는 진주성 1차전투의 패전을 수치로 여겨

총 동원령을 내려 완벽한 복수전을 주문하며
 진주성에 있는 사람은 씨도 남기지 말고
 도륙하라고 명령을 하는구나.
 드디어 명백한 결전, 예정된 혈전에 성큼 성큼 다가오고 조선의
 관군과 의병들은 왕의 특사 순변사 이변의 지시로 의령으로
 속속 집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수성파와 공성파의 의견이 분분하다.
 수성파 대표 창의사 김천일 이르기를
 우리가 진주성을 버리고 물러선다면
 적들은 더욱 깊숙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오.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이 위험하고
 호남이 왜놈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끔찍한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오
 진주성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하오
 공성파 대표 홍의장군 광재우 맞서기를
 총력전을 펼치며 달려드는 왜적들에게(비해)
 어찌 굶주려 지친 적은 병사로(오합지졸로) 대항하겠소
 (우리군사는 오합지졸로 굶주려 지쳐 대항할 수 없소!)
 진주성을 지키기보다 외곽에서 기습 공격하여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이 좋은 전술로 판단되오
 지금 적과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소
 진주성을 포기하고 공격기회를 엿봅시다
 수성론과 공성론이 팽팽하게 맞서는구나
 진주성을 지켜야하오 목숨 걸고 지켜야하오
 진주성은 포기하시오 자살행위나 다름 없소
 어찌 장수가 죽는 것을 두려워 하리오 포기할 수 없소
 나의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군졸들을 버릴 순 없소
 진주성을 지켜야하오 진주성은 포기하시오
 양론이 굽힘없이 팽팽하게 맞서더니
 결국에는 절충도 타협도 못하고 둘로 나뉜다
 <소리가 들어가면 빠지고 소리가 없으면 들어가고>
 장수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니 목숨 걸고 진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수성론과 진주성을 내주고 외곽에서 적의 기세를
격자는 공성론으로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구나

34. 진주성 입성 풍경(예정된 혈전)

수성론과 공성론이 팽팽하게 맞선 장수들 사이에는 경쟁심과 자존심,
시기와 알력, 그리고 못된 당파의 미묘한 긴장이 존재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 승패에 대한 관점차이였는데,

전쟁이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수들의 판단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결국에는 둘로 나뉘어

수성파는 창의사 김천일을 필두로 김해부사 이종인, 최경희, 황진, 고
종후, 홍계남들이 차례로 진주성에 들어가고 공성파는 홍의장군 곽재
우를 비롯하여 전라감사 권율, 전라방어사 이복남, 전라좌 의병장 임
계영, 그리고 진주성 수성을 얘기하던 순변사 이빈 조차 피신하며 퇴
각하여 흩어지고, 제 2차 진주성 전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구나

진주성은 조선제일의 명성으로 천혜의 요새

적절한 응원군만 외곽에서 지원하다면
일차 진주성 전투처럼 반드시 지키리라
수성파 장수들은 결연한 의리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결연한 의지로

죽음이 예정된 땅 진주성으로 들어 간다
성안은 피난 온 백성들로 북새통

참혹하게 짓밟히고 빼앗긴 영남 사람들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힘없는 백성들

진주성은 그들의 희망 마지막 보루 최후의 선택

살아남으리라! 아우성이자 절규다 몸부림이다

난장판의 진주성이 장수들의 입성으로

갑자기 날아든 도원수의 전군 철수 전령으로

성안이 한바탕 발각 뒤집힌다
장수들은 군사통제의 최고 책임자 명령을 받고
고심고심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나갈 장수는 나가고 남을 장수는 남아 싸우자
결정이 내려지고 여러 장수가 성을 떠나니
안정을 찾던 성안 백성들과 장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술렁이기 시작하는구나

35. 병력 점고

이때여 최경회는 김천일 황진과 함께
장졸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점고를 하는데
“김천일 장군 막하로 몇이나 남았소.”
“장수 양산숙과 오백 병사가 의리를 지키겠다하오.”
“황진 장군 막하의 상황은 어떻소?”
“장수 조방장과 정명세 그리고 병사 칠백이오.”
“내 휘하는 오백병사요.” “복수 의병장 고종후 사백.”
거제 현령 김준민 사백! 사천현감 장윤 삼백!
당진 현감 송재 이백! 복수 의병부장 오유 사백!
웅의병장 이계련 일백! 비의병장 민여운 이백!
도탄의복대장 강희본 이백! 도탄의병부장 이잠 삼백!
김해부사 이종인 순천 분의병 부장 강희열
영광의 의병장 심우신 해남포의병장 임희진이
각각 병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여기에 진주의 기존 병력을 합하면
대략 오천이오! 병력 오천에 민간인 오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머물 사람만 남았소
죽기를 작정하고 싸울 일만 남았구나

36. 논개의 선동

그때여 논개는 성안을 휘돌아 보니
늙은이와 부녀자 아이들만 바글바글한데
성한 사람 별로 없고 거의·모다 병자구나
어디가 선잠던지 어디가 아프던지
그나마 성한 사람들 배를 굶아 비실비실
게우게우 붙은 목숨 아등바등 살아있고
실낱같은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사는 목숨
지치고 무력감에 맥이 빠져 웅크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만을 기다린다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를 장차 어쩔거나
총력전을 펼치면서 왜군들은 몰려오는데
우리군사 오천으로 어찌 성을 지키단 말이나
왜놈들의 총칼은 닥치는 대로 죽인다
남녀노소 분별없고 상하귀천 구별 없이
살려면 싸워야 한다 죽지 않고 맞서야 한다
성을 살피던 논개가 난민들에게 외치는데
“우리도 싸웁시다! 진주성을 지킵시다!
병사들만의 힘으로는 이성을 지킬 수 없소이다!
다같이 병사들을 도와서 싸워야 하오!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도 싸웁시다.”
논개의 외침에 메아리가 생기는지
웅크리고 앉았던 사람 중에 하나들이
멈짓 멈짓 부시럭 부시럭 움찔움찔 하더니
“웁소” “그럽시다” 하고 터지는구나
“젊은 새댁 말이 웁소, 좁은 성안에서 우왕좌왕
왜놈 총에 맞아 죽기 전에 서로 밟혀 죽을 판이오
뒷짐 지고 죽을 채비 하지 말고 나섭시다!”
“맞는 소리요, 행주 성 여인네들 한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역분을 해냅시다”

“군사들 밥도 짓고!” “부상병을 돌보고!”
 “술을 걸고 물 끓이고! 돌맹이는 주워 나르고!
 무너진 성도 손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읍시다!
 더위에 늘어진 잡초가 단비에 일어서듯
 일시에 우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알아서 돕는구나
 논개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가
 임을 위한 사랑인가 난민들에 연민인가
 논개는 알 수없는 힘에 끌려 선동 하는구나
 백성들 속에서 싸움준비로 자신을 잃어버렸다

37. 일본군 진주성으로

1593년. 임진년 다음해 유월 열아흐레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총 동원령을 내려
 십만대군을 휘몰아 진주땅으로 들어서는데
 왜적들이 몰려 온다 십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기세등등 위풍당당 진주 땅에 들어오는데
 요란한 함성소리 지축을 흔들흔들
 형형색색 수천깃발 넓은 하늘 뒤덮이고
 머리를 풀어 제쳐 기괴한 가면도 쓰고
 울긋불긋 부채모양 장대궤에 휘날리며
 간간하게 기세돋우는 대포소리 광! 광!
 산을 넘고 들을 달려 밀물처럼 몰려 오네
 어찌 보면 대동굿판 광대놀음 탈 곳 같고
 질서정연 전장으로 몰려가는 불개미 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밀려드는 메뚜기 떼
 우르르르 총총하게 끝이 없이 밀려 온다
 조선군들 떨어진 사기 같같이(짓밟고) 찢어가며(짓이기며)
 공포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을 듯
 왜적들이 몰려 온다 십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38. 진주성 전투 (첫째 날)

이때여 성안에서는 의병통솔을 김천일이 관병통솔은 최경희가 하였으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위하여 총지휘를 김천일이 맡고 각각의 장수들도
책임구역을 정하여 군과 민이 한 몸으로 철저하게 방어준비를 하는데
성안의 육만 관민을 불을 보듯 뻘한 결말 속에 실낱같은 한가닥 희망이라도
놓치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구나
한편 왜군은 진주성 사방 백리를 장악하고 일각일각 고삐를 조여오더니
십만 대군을 다섯 부대로 나누어 편성하는데 김천일과 최경희가 지키는
북문으로 제 일번대 가토의 이만오천 군사가 포진하고, 김해부사 이종인이
지키는 서문에는 고니시가 지휘하는 제 이번대 이만육천 군사. 게다가
고바야카와의 제 오번대 구천군사가 뒤에서 지원하고 성의 남쪽 남강쪽은
일천명을 매복시켜 응원군을 차단하고 맹장 황진이 지키는 동문은
만구천의 제 삼번대 우키다와 제 사번대 모리의 이만 이천 군사를 배치하여
겹겹이 둘러싸는구나
십만 공격군 대 오천 방어군의 싸움이 일촉즉발!
순간 진을 치고 조용하구나
유월 스무하룻날

팽팽하던 긴장 속에 고요적막 깨뜨리며
왜군기병 한 무리가 동북쪽으로 나타나서
말굽소리 요란하게 성안상황 살피더니
왜군병사 대부대가 성을 향해 밀려오는데
한겹 두겹 하시 한겹 삼중 사중 포위하여
가지각색 낫선 모양 수천 깃발 바쳐 들고
우글우글 바글 바글 개미떼처럼 몰려든다
수만 명의 왜군들이 여유 작작 다가오니
성안은 사생결단 전투준비 요란하다
동쪽이다! 동쪽으로 왜군들이 몰려온다!
동쪽 성을 방어하려 수성병력 집중하니
왜군병력 허를 찔러 서쪽으로 접근하여

성 밖으로 만든 늪에 물을 빼고 흙을 메워
 평탄하게 다져내어 공격대로 만드는데
 등짐진이 누구인가 조선백성이 아니더냐
 조선인이 조선백성 죽이러갈 길 만드느구나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런 일을 어쩔거나
 성안 백성 속수무책 비참하게 지켜본다
 날 저물자 왜군들이 포위 풀고 철수하여
 첫날 전투 접전 없이 끝나는가 했더니만
 어디서 잡혀온 은자동이 금자동인지
 성 안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친다
 “진주성은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와 같다!”
 “무슨 수로 지키느냐! 포기하고 항복하라!”
 “우리 장수가 너희 장수 목을 베고 말 것이다.”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애처로운 목소리는
 성 안 사람의 가슴 속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39. 진주성 전투 (둘째 날)

유월 스무 이튿날!
 아침부터 왜군 기병 출몰한 걸 시작으로
 왜군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하는구나
 동쪽 북쪽 그리고 서쪽 어느 방향도 거침없이
 “도수께끼! 돌격 앞으로! 황! 황! 따다다당!
 함성소리 와~! 대포소리 황! 황!
 조총 엄호 받으면서 방패 들고 돌진 한다
 새까맣게 몰려온다 물밀듯이 쳐들어와
 “겁먹지 말고 공격하라! 활을 쏘라! 화살을 당겨라!”
 김천일과 최경희가 병사들을 독려하며
 동분서주 정신없이 공격하라 명령한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앞엿 놈이 쓰러지면 뒤엿 놈이 앞에서고

또 그놈이 쓰러지면 그 뒷 놈이 앞에서고
 끝이 없이 밀려온다 자꾸 자꾸 다가온다
 긴 사다리 갖춰들고 동문으로 닥쳐왔다
 돌을 던져라! 물을 부어라! 불화살을 쏘아라!
 명장 황진이 굳건하게 동문을 지켜낸다
 하지만 아무리 넘어뜨리고 불 태워도
 왜군들의 공세는 자시가 가까워도
 잣아들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른다
 조선군 병사들은 단 하루 싸움으로
 기진맥진 지쳐버려 파김치가 되었구나
 중과부적이라 밀 빠진 독 물 붓기다
 조선군이 총력전으로 겨우겨우 물리친다.
 “하루라도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소이다
 누구라도 내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합시다”
 호위부장 강희보가 김천일을 재촉하니
 김천일도 바라던 바 강희보의 추천으로
 진주성의 구원특사 임우화로 결정하여
 한 가닥 희망실어 몰래 성을 내보낸다.

40. 진주성 전투 (셋째 날)

유월 스무 사흘날!
 꼭두새벽 하늘 찢는 총소리로 시작이다
 따다다 -----
 총알이 소낙비처럼 성안으로 쏟아지고
 뵙 뵙 뵙 호각소리 고래고래 고함소리
 땅이 푹 꺼지는 듯 대포소리 팡 팡
 죽고 죽이는 전쟁이란 시도 때도 없네 그려
 성안은 한 바탕 난리긋의 난장판
 아닌 밤중 홍두깨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 법석 난리 중에 허겁지겁 헐레벌떡

쏟아지는 탄환 맞고 옆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난리 생 난리 이런 난리 없었구나
 적들이 몰려온다! 원위치 하라! 전투 준비!
 겨우겨우 수습하여 적의 공격 막아보는데
 활을 쏘라! 대포 발사! 불화살을 당겨라!
 돌도 주워 나르고 끓인 물도 준비하라!
 조선 땅의 왜놈들이 다 모였다 하더니만
 참말 많긴 많네 그려 징그럽게 많네 그려
 엿저녁에 새끼 쳤나 어제보다 훨씬 많아
 죽을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말아낼 제
 늪을 메워 닦은 길로 왜적 무리 몰려오는데
 대열 앞에 낮익은 얼굴하나 눈에 띈다
 저게 구구여 임우화여! 임우화가 잡혔어!
 왜놈들이 임우화를 화살 반이로 삼았구나
 생사고락 함께하던 임우화를 알아보고
 조선병사 무슨 수로 활을 쏠 수 있겠느냐
 그때여 임우화가 성을 향해 외치기를
 어서 활을 당기시오!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바라보던 군사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엉 엉 엉 울음 운다 땅을 치고 통곡 한다.
 왜놈들은 공격 때마다 임우화를 앞세워서
 비열하고 잔인하게 심리전을 하는구나
 낮에 세 번 물리치고 밤에 네 번 물리치고
 일곱 번 싸움하여 일곱 번을 물리쳤다
 싸워도 싸워도 끝이 나질 않는 싸움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무섭고 두려웠다

41. 진주성 전투 (넷째 날)

유월 스무 나흘날!
 날이 갈수록 전투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성 안에 죽은 시체 여기 저기 나뒹굴고
 성 밖의 왜적들의 시체도 늘어가고
 죽고 또 죽이는 피투성이 아수라판
 한바탕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른다
 오늘은 왜군들이 귀갑차로 공격한다!
 귀갑차는 거북이 모양의 수레로서
 튼튼한 나무퀴짜를 바퀴가 네 개 달린 수레위에
 올려놓고 퀴짜 속에 군사들이 들어앉아
 손으로 수레를 앞으로 굴리고 후퇴 할 때는 밧줄을 뒤에서
 당겨 후진시키는 무기로서 퀴짜 윗 부분이 거북등 같다하여
 귀갑차라 불렀구나
 수십 개의 사다리를 달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적병들만도
 버거운 차에 괴상망측한 귀갑차의 등장은 성안 사람들을 더욱 더
 두렵게 하는구나
 그 날의 전쟁도 지칠 대로 지쳐가며 치뤘구나

42. 진주성 전투 (다섯째 날)

유월 스무 닷새 날!
 적군이나 아군이나 인명피해는 극심하건만 아군의 수는 나날이
 줄어드는데 적군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나
 왜군들은 동문 밖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높은 망루를 세워 성안을 내려다보며
 포탄과 총알을 쏟아 붓는구나
 동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쏟아져 내리는 총탄을 피할 길 없어
 맥없이 죽어 가는데 이를 지켜보던 황진 장군
 이를 아드득 갈더니만
 우리도 성안에다 흙 산 쌓아 막아내자!
 갑옷과 투구를 훑훑 벗어 내던지고
 황진 장군 흙을 파서 망태가득 짚어진다
 장군이 몸소 돌과 흙을 저 나르는 모습보고

상 안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랐다가
 감격이 북받쳐서 주체하질 못 하더니
 뒷짐 지던 사내들도 발 구르던 아낙들도
 비척이던 노인들도 아이들의 고사리 손도
 흙을 파서 나르고 돌을 들어 나른다
 손톱이 너덜거려 피가 줄줄 흘러도
 모두들 미친 듯이 흙산을 쌓는구나
 흙산이 불쑥불쑥 거짓말처럼 자란다
 성안 사람 모두가 자기 눈을 의심하네
 흙산을 만들었다! 우리가 해냈구나!
 흙이 범벅 땀이 범벅 감동의 눈물 범벅
 황진 장군 흙산위에 망루 세워 대포 걸고
 왜적 망루 조준하여 대포 알을 날리는 구나
 광! 광! 명중이다! 부수고 또 부수고
 유월 스무 엿셋날!
 유월 스무 이렛날!
 유월 스무 여드레!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전쟁이 계속되는 구나
 서쪽 성벽이 지난밤에 무너져 날이 밤자 짐작대로
 왜군 병사들이 몰려오는데
 황진 장군이 준비하여 기다렸다 화살과 바위, 총통과 불 뭉치를
 한꺼번에 날렸것다
 왜군 병사 수백이 죽고 겨운 산 놈 달아나니 승리의 명장 황진이
 성루에 올라 기뻐하며 이르기를
 “위태로운 지경을 넘기고 대승을 거두었다!”
 와-----! 탕!
 이게 어인일이더냐
 함성 속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리더니
 황진 장군 균형 잃고 허물어져 쓰러진다
 한마디 유언도 남길 틈도 전혀 없이
 시체더미에 숨어있던 왜놈 병사 쏜 총 맞아
 검붉은 피 쏟으면서 숨이 끊겨 죽는 구나

성 안의 장졸들과 백성들이 모다 모여
 아이고지고 원통하다 땅을 치고 통곡 하네
 지혜와 믿음과 어짊과 용맹과
 위엄의 자질을 모두 갖춘 맹장이여
 성안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 담뱃 받던
 뜨거운 사내 황진이 죽었구나
 다시 못 올 먼 먼 길 저승길로 가셨구나
 황진 장군은 장수 출신의 명재상 황 희 정승의
 5대 손이 아닌가.

43. 진주성의 마지막 밤

그때여 논개는 사랑하는 님 최경회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을
 예감하며 마주하였는데 최경회가 그윽하게 논개를 바라보며 이르기를
 “어찌자고 사지까지 함께 들어왔단 말인가.
 따라온 너도 말리지 못한 나도 어리석었다”
 “아닙니다, 나리. 소첩은 후회한 일 없사옵니다.”
 “내가 정녕 너를 아꼈다면 날개를 달아주어 훨훨 날아
 보내줘야 했을 것을”
 “나리는 한 번도 소첩을 가두거나 율매이지 않았사옵니다.
 소첩에게 나리와 함께 함이 가장 큰 기쁨일 따름입니다.”
 논개는 말을 이으며 연신 눈물을 뚝 뚝 뚝 떨어뜨리는구나
 최경회가 다시 다정히 부르는데
 “논개야”
 “예”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어떤 부탁이신지 소첩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을 꺼리오리까”
 최경회는 눈물 젖은 논개의 두 손을 살며시 끌어 잡고 이르기를
 “논개야! 살아다오. 부디 살아 남아다오.”
 자신의 목숨은 버릴지언정 진정 아끼는 것을 지키고 싶은
 최경회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욕망인가.

눈개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그저 울고 또 우는구나
 그날 밤 눈개가 흘린 눈물이 남강을 더욱 불렀으리라
 이 밤 이 밤 마지막 밤 서러운 마지막 밤
 최경희와 눈개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
 첫 만남 재판 받던 다섯 살의 그녀 모습
 십여 년의 세월 속에 스쳐지나던 수많은 인연
 사도시정 한양 생활 조출했던 혼례까지
 지난 세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저 여인은 아름답다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육십먹은 늙은이가 어찌 저 꽃 탐했든가
 이제 갓 피어난 꽃 떨어져는 아니되지
 사랑하는 내 님이여 그대 탐한 나를 용서하라
 눈개는 서리 연 밤 눈물로서 지새는구나
 님 이시여 그대는 그대는 빛이시었소
 그대 빛이 없었다면 이 꽃 어찌 피오리까
 님과 함께 하오리다 이승 인연 저승까지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 저승에서 나누리라
 님과 함께 있는 이 밤 이 밤이여 영원하라
 님아 님아 우지마라 네가 울면 날 밝는다
 하늘도 서러운지 쉬지않고 비를 쏟고
 촛불도 이 세상의 둘의 이별 아쉬워
 제 몸 태워 눈물을 드리우며 새운다

44. 진주성 전투 (아홉째 날)

유월 스무 아흐렛날!
 황진 장군 죽음이후 수성군이 동요 한다
 패배가 자명하다 도망치는 피난민들
 죽음 피해 도망쳐도 살 길은 요원하다
 아비규환 비참함을 진정할 길 바이없어
 최경희와 김천일은 버둥거리 보지만은

성 안의 지휘체계는 사실상 무너졌구나
 그때여 왜병들이 총공세를 퍼붓는다
 귀갑차 세 대가 동문성에 돌진하여
 쇠로 만든 지렛대로 상곽 밑돌 뽑아 낸다
 뚫린 성벽 돌파하여 왜군들이 밀려 든다
 김천일이 지키던 신북문도 무너지네
 왜군들의 주력부대 밀물처럼 들이친다
 도적놈들 다 덤벼라!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진주사람 정대보 맨 주먹을 휘둘러서
 수십 명의 왜놈 잡고 피를 뿜고 쓰러지고
 나는 무인이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의의병장 심우신 사생결단 활을 쏘며
 적진으로 달려들어 욱심껏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지자 활 휘둘러 싸웠구나
 도탄 의병부장 이잠 북향사 배바친후에
 적진 향해 활을 쏘고 칼 휘둘러 베는구나
 비의병장 민여운 육박전 중 왼손 잘려
 오른 손에 검잡으니 그 손마저 잘렸구나
 혈육 잃은 슬픔과 분노 하늘까지 찌를듯이
 조부 원수 갚기 위해 어린 손자 맨 몸 돌진
 형님 죽고 아우 죽고 아버 죽고 아들 죽고
 왜적들은 꾸역꾸역 물밀듯이 밀려들고
 비바람은 거세게 드세게 휘몰아치고
 진주성 사람들은 갈팡질팡 죽어가고
 몇몇의 용사들이 최후까지 버텨보나
 그들도 하나 둘 질붙처럼 꺼져가네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죽고 또 죽고
 이때여 최경회는 함락된 성 바라보다
 조카 홍우 불러 놓고 유품 유언 전하는 구나
 언월도와 청산 백운도 입던 관복 전하면서
 「“홍우야 내말 잘 듣거라! 이걸 가지고
 화순으로 돌아가거라.

반드시 살아서 오늘 얘기를 전하거라.!”」
 조카 홍우 흐느끼며 성을 빠져 나가는구나
 축석루 지휘소에 장수들이 모였구나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술 한잔 씩 나눠들고
 최경회가 즉석에서 시를 한 수 읊는구나
 「축석루 세 장수는 술 한잔을 나눠들고
 웃으면서 남강의 거센 물결 가리키노라
 강물은 변함없이 도도히 흘러가니
 저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내 혼도 죽지 않으리!」
 북향 사배 행한 후에 먼 하늘 바라보며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양산숙
 도도한 남강 물로 차례차례 뛰어든다
 진주성 전투는 이렇게 막 내린다
 육만여 목숨들이 장엄하게 죽어갔다

45. 일본군의 살육 (광란의 잔치)

제 2차 진주성 전투는 동래성 전투보다도 더 참혹했고
 행주성 전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항전한 전투였었다
 누구나 예상했던 패배,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치열한
 항전이었구나
 그때여 성을 함락한 왜놈들은 극렬했던 저항만큼이나
 모질고 사납게 양갓음을 하는데
 광란의 시작이다.
 잔치다 피의 잔치 축제다 복수의 축제
 광란과 발광과 지랄과 복수다
 성안에 산 것은 모조리 도륙하라
 닥치는 대로! 죽을 때 까지!
 찌르고 쭈시고 쏘고 갈기고
 적의 눈에 띄는대로 모조리 죽는구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보다 죽고 못 봐 죽고 울다 죽고 웃다 죽고
 실없이 죽고 어이없이 죽고 자다 죽고 졸다 죽고
 원통히 죽고 절통히 죽고 찢려 죽고 맞아 죽고
 밟혀 죽고 채여 죽고 부딪혀 죽고 눌러 죽고
 도망가다 잡혀 죽고 숨었다가 걸려 죽고
 하다못해 말 소 개 돼지 닭 짐승까지
 왜놈들 눈에 띄면 모조리 죽는구나
 나무도 베 버리고 샘물에는 독약 풀고
 진주성을 누비면서 안팎으로 불 지르고
 치마 두른 여자 보면 모조리 겁탈하고
 진주성을 잔인하고 철저히 짓 밟는다
 피의 잔치 복수의 축제 지랄 발광 하는구나

46. 살아남은 논개 (마지막 밤)

왜놈들은 진주성을 철저히 짓밟고서 다시 군대를 두 갈래로
 편성하여 제 1대는 경상도 달성 산청 등지로 나갔고
 제 2대는 전라도 구례 곡성까지 진출하여 진주성 외곽지대 초토화에
 나섰다다가 모두 진주로 복귀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그들은 워낙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도 생겨났고
 병사들의 사기도 침체되어 있어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질탕하게 전승 축하연을 준비 하는구나
 전승 축하연이 제대로 되려면 술과 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부터 진주 관기는 유명한 지라 칠월칠석날 전승 연에
 진주 관기를 모두 소집하라 명을 내렸것다
 그때여 논개는 고금을 통틀어 가장 잔혹한 복수극,
 살육의 광란 속에서 어찌 살아남았는지,
 시체더미 속에 깔려 구사일생 목숨을 구했는지?
 쫓겨 도망치는 사람들에 떠밀려 목숨을 구했는지?
 몇날 며칠을 지독한 악몽 속에서 시달리다 살아났구나
 그리하여 논개는 이러 저러한 소리 소문을 듣게 되는데

진주성에서 벌어진 여러 사정을 듣고, 최경희의 자결 소식도 듣고
 왜놈들이 전승 축하연을 벌인다는 소식도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많기도 하였어라.
 논개는 살아 있음이 부끄럽고 살아남은 것이 몹시 괴롭고 슬펐구나
 어찌하여 살았느냐 어찌하여 남았느냐
 수천 수만의 죽음 속에서 어찌하여 살았느냐
 님 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가시었소
 그대 가신 이 땅위에 어찌 나를 남기셨소
 무정하오 무정하오 어찌 나를 살려두오
 염라대왕 저승차사 실수로서 살았는가
 거들 주검 하도 많아 못 챙기고 빠뜨렸나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나도 가려오 날 다려가오
 눈물 없이 소리 없이 녀을 놓고 울음 울제
 깊은 잠에 빠지는 듯 깊은 생각 잠기는 듯
 고요한 적막 속에 깊이 깊이 빠져든다
 님이시여 이승에서 그대 삶은 어떠셨소
 행복이오 즐거움이오 고통이오 괴로움이오
 논개는 고달픔도 서러움도 외로움도
 님을 만나 모두 모두 잊었지요 행복했지요
 그대와 함께 한 이 세상은 기쁨이었소
 이승에서 짧은 만남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대 따라 가려하오 그대 따라 가리다
 어둠이 찾아오고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논개는 죽은 듯이 움직임 없이 고요하구나
 그대 삶은 무엇이었소 그대 죽음은 무엇이오
 이 세상에서 붙들려했던 그것이 무엇이오
 임금을 위한 나라를 위한 가문을 위한 백성을 위한
 충성이오 의리요 믿음이요 희생이요
 논개에겐 임금도 나라도 필요(가문도) 없지요
 백성만이 있었을 뿐 사람만이 있을 뿐
 임금과 나라는 백성을 위하지 않고
 차별하고 빼앗고 짓밟고 죽였을 뿐

누구를 위한 충성이오 무엇을 위해 충성이오
 백성들의 죽음은 나라 위함이 아니었소
 그들의 죽음은 생명을 위해 천명을 위해
 거룩한 백성의 죽음 천명 수호를 위함이오
 천명은 하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
 천명을 해치는 왜적에 대한 맞섬(싸움)이었소
 천명을 받들려고 거룩하게 죽었을 뿐
 님이시여 이제야 참뜻을 깨달았소(알것같소)
 내 목숨이 왜 남았는지 그대 참 뜻 무엇인지
 거룩한 생명을 해치는 자의 응징이오
 천명을 거역하는 자들의 응징이오
 날이 새면 칠월칠석날 견우 직녀 만나는 날
 님이시여 논개도 그대 찾아 만나리다
 논개 이제 당신 곁으로 찾아가리다
 그제서야 논개는 눈을 뜨고 일어서서
 깨끗이 몸을 씻고 맑은 물(물 한그릇) 바쳐놓고
 하늘에 정성들여 기도를 올린 후에
 촛불 밝혀 곱게 곱게 단장을 하는구나
 백옥 같이 흰 얼굴에 곱게 곱게 분바른뒤
 앵두 같은 입술에는 입술연지 찍은 뒤에
 동트는 새벽처럼 본래 고운 뺨에다가
 또다시 연지 찍고 또다시 매만지고
 검은 머리 틀어 올려 쪽을 지어 가른 후에
 봉황 한 쌍 아로새긴 칠보비녀 곱게 지르고
 다섯 폭 남색치마 옥색 깨끼저고리에
 청실홍실 노리개를 늘어지게 앞섬에 달고
 하이얀 외씨버선에 꽃 분홍 운혜를 신고
 은장도 가슴에 품고 은반지 눌러 끼고
 살포시 일어서서 한 바퀴 돌아보니
 하늘 선녀가 인간 세상에 하강한 듯 하여라
 닦아 닦아 너 울어라 네가 울어야 날 밝는다

47. 전승 축하연

칠월칠석날! 전승축하연!

초토화된 진주성이 밝아오는구나

축석루 주변은 아침부터 알수 없는 안개가 흐르고

남강은 여름의 장마 비로 물이 불어 도도히 흐르는데

왜놈들의 전승 축하연은 아침부터 시작이었다.

조선인의 피는 저들의 술이 되고, 조선인의 살은 안주가 되고

조선인의 곡성은 노래가 되고, 조선인의 몸부림은 춤이 되어

전승 축하연이 흥청망청 게걸스레 펼쳐졌구나

왜장들은 벌써부터 낯술에 취하여서

짐승 같은 눈빛으로 휘청거리며 떠들썩한데

논개는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하는

성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선다

48. 칠월 칠석날

그때여 누군가 논개 어깨를 툭 치길래

돌아보니 빙그레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저기서 혼백들이 스물 스물 나오는데

불타 무너진 기둥사이로 허물어진 성벽을 타고

돌무더기 위에서도 물 끓이던 자리에서

눈물 고인 눈망울들 빙그레 웃음 짓고

곱게 꾸며 차려입은 논개 모습 신비한지

논개 주위 빙빙 돌며 매만지고 따라 나선다

“이보시오 영령님네 내 모습 예뻐되지요.”

“견우직녀 만나는 날 나도 내님 만난다오.”

할 일하고 가려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오

축석루 절벽아래 물에서 한 발 정도 되는 거리에 사면이 깎아지른 듯

한 바위가 있었는데 위험하다 하여 위암이라 이름 붙여 진 것이

있었겠다.

논개는 위암을 거사 장소로 생각하고 경충 뛰어올라 사나운 물 길
 휘감아 도는 거센 강물을 바라보니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도
 떠도는 서러운 녀들이 두눈에 가득 원한의 눈물 머금고 빙그레 웃고
 있는데 논개 곱게 차려입은 자태로 노래 한 곡조 불러본다
 남가의 어부들아 고기 잡아 삶지마라
 진주 백성 원혼들이 고기 뱃속 들었으니
 아무리 삶아낸들 익을 리가 있겠느냐

49. 논개 의거

그때여 마음껏 처먹고 마시고 농탕치며 피로연을 즐기던
 왜놈장수하나 있었는데 키는 칠척거구에 힘깨나 쓰고 칼 잘쓰기를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사무라이로 병사들에게도 인기높고
 혹독한 고행을 극복하고 출세한 입지전적 인물인 게야무라 로쿠스케라
 는 장수였었다.

바로 이 게야무라가 처음으로 논개를 발견하고 쫓아 내려오는데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왜군 장수들은 재미난 볼거리가 생겼다고
 웃어 싸고 괴성을 지르고 발광을 하며 난리굿을 하는구나
 놈이 다가온다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오냐 어서오너라 와라 어서와라
 논개는 다시 한번 최경회를 생각한다
 님 이시여 논개 그대 곁으로 가나이다
 게야무라 위암 앞에서 멍짓 멍짓 머뭇거릴제
 축석루에서 지켜보던 장수들이 야유 퍼부으니
 게야무라 저 죽을 줄 모르고 펄쩍
 논개를 두 팔 벌려 와락 끌어안으니
 축석루 위에서는 환호성이 난리 친다
 논개는 두 손으로 왜장 허리를 휘감은 뒤
 깍지를 꼬옥 꼬옥 끼어서 껴안고서
 태산을 뿔뿔이 밟을 굴러 허공으로
 날렸구나 풍덩

소용돌이 치던 남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고요하게 흘러만 가는구나.

50. 더질 더질 (마무리)

조선시대가 규정해 놓은 전통적 가치로서
가장 여성다운 것은 먼저간 부군을 따라 자결하는 것
이런 자결이 오랜 전통적 덕목으로 숭앙해온 의열의 실천이었구나
논개는 전통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 적장 살해를 통해
충절을 실천했었다.

조선 사대부 여인들의 보편적인 의열을 초월한 것
최경희와 논개,

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한 사랑의 힘이 없었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 없었다.

논개의 절대적인 흠모와 존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논개는 죽은 후부터 그의 삶이 알려져서

진주 기생 논개로 죽어 148년 만에 의기로 안장되어

의기사 사당이 지어지며 사후 207년 만에 고향 장수를 찾게 되고

400여년 만의 기생아닌 주논개로서 그의 삶의 종적이 밝혀지는구나

가히 혁명적인 삶을 살다간 논개. 죽어도 죽지 않는 파랑새되어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며 얼마나 더 살아갈지.

작가 추서.

신재효 선생이 당대의 구전 또는 기록으로 전해져온 판소리를 정리 집성하신 것처럼 나도 그저 여러분들 노력의 결실인 기록과 정리를 바탕으로 판소리 창본을 내놓는다

이 초본이 이후 많은 소리꾼과 창작자들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참고가 되었던 책의 저자 분들 이이화 님, 정동주 님, 김별아 님께 감사드리며 고증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고두영 님, 김진영 님께 감사드린다.

